

'1일 · 1공연'... 소리축제 프로그램 확정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안전 · 방역에 '집중'
미디어 · 온라인 중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올해 소리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5개 분야, 6개 공연(9회)으로 대폭 축소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에 대응하며 다각적 측면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 축제 운영의 방향을 '안전'과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고 미디어 · 온라인 중계로 축제 방향을 정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제가 진행되는 5일간, 하루에 한 개씩 총 다섯 개의 공연을 지상파 방송 4개사와 SNS 온라인 중계를 통해 선보인다.

또 안전 관리가 어렵고 관객 밀집이 예상되는 실외공연, 부대행사, 푸드 코트 등 야외 프로그램 및 행사를 전면 보류하고 실내 공연(모악당) 중심의 미디어 · 온라인 공연을 진행한다.

미래세대 육성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축소 운영하되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오는 10월 중 진행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잇다(Link)'로, 현악기를 주요 소재로 현악기의 특징인 이음과 줄들을 모티브로 삼아 축제 전반의 콘셉트를 만남과 접속, 포용과 수용이라는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

먼저 소리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 '잇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온라인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쇼케이스가 열린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공연팀이 실전과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고 있다.

합동 공연으로 진행, 지역 예술을 넘어 한국 전통예술과 해외 협연을 대한민국 IT 기술과 연계해 선보인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러시아연방 등 14개국 연주자들과 실시간 라이브로 협연을 진행, KT 측과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통해 문화적 교류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개막공연에 이어 9월 17일 '현악기 특집 기획 공연, 현 위의 노래', 18일 'KBS 한국인의 노래 앵콜 로드 쇼', 19일 'CBS와 함께하는 별빛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소리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공연'은 판소리에 덧입혀진 청년 뮤지션들의 NEW 시나위인 '전북 청년 음악 열전'으로 꾸며진다. 다섯 명의 실력과 젊은 소리꾼과 전통음악, 락, 재즈 등 우리 지역의 연주자 40여명이 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20주년을 맞아 내년으로 미뤄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류사업도 이어간다. 더불어 20주년 기념 세종문화회관 특별 공연기획을 준비할 계획이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올해 어떠한 방식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갈지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통해 색다른 경험과 페

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관중, 비대면이라는 말은 아직 쓰고 싶지 않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민하게 날을 세우며,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굳게 지키며 행복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부 공연 정보는 8월 17일 홈페이지 2차 오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객석 거리두기를 통한 최소한의 객석 운영 여부는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며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슬기로운 유튜브 구독'

전북문화관광재단, 이벤트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슬기로운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업로드된 영상 시청 후 구독을 인증하는 화면과 주어진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단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당첨 결과는 7월 31일 재단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총 34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PCH지킨&콜라 모바일상품권, GS25 모바일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인 홍보팀장은 "'슬기로운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재단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재단의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홍보팀(063-230-747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18일 '대한민국 농악축제'

익산 미륵사지 광장서

익산시는 제15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는 18일 익산 미륵사지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축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을 비롯하여 진주삼천포(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 평택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 임실필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악 단체들의 공연이 한 자리에서 펼쳐진다.

부족놀이와 매우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한 이리농악, 남성적이고 군악적인 기예가 뛰어난 진주삼천포 농악, 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며 노래구멍이 있고 특히 무동놀이가 발달한 평택농악, 가락의 맺고 끊음이 분명하며 개개인의 기교보다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임실필봉농악이 나서며 각 읍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농악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공동체들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특히 이날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인 익산 미륵사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서 유·무형의 유네스코 유산이 한 자리에서 교감할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도시인 익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로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희 기자

남원시, '춘향골 소리판' 축제 추진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류영근)는 문화도시 '춘향골 소리판' 축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저녁에는 남원 국악예술고 학생 5명이 전통국악 기반의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 16일에는 시민 13명과 함께 축제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체험, 부스, 공연 등의 기획과 콘셉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직접 만들기 위해 구성된 시민축제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춘향골 소리판'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춘향골 소리판은 국악예술고 학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44명의 '시민축제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오는 9월에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원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이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합력단이 주관하는 '동원제마을' 국악거리축제와 연계해 통해 소리고장 남원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시민 전통국악 축제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축제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직접 논의의 구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문화유산관리 '우리 손으로'

장수갨아 지킴이 '관심집중'

장수갨아 지킴이들이 장수갨아 문화유산 관리에 직접 나섰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남산마을 양민용 이장과 사곡마을 송재열 이장, 동가야마을 윤동호 이장 등 주민 30여명 등으로 구성된 장수갨아 지킴이들이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동촌리고분군과 백화산고분군·침령산성을 지난 5월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552호로 지정된 동촌리고분군은 동가야마을 윤기문 어르신이 주기적으로 풀 뽑기와 함께 고분에 잔디가 죽거나 무너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장계 삼거리 남산마을에 위치한 백화산 고분군과 계남면 침곡리 사곡마을에 자리한 침령산성도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장수갨아 지킴이들이 고분과 산성 주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수갨아지킴이 관계자는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천년간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후손으로서 직접 우리 유산을 지키고 가꾸기로 뜻을 모으게 됐다"며 "함미음으로 움직이며 문화유산 내 마을에 자리한 문화유산 돌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문화유산 지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는 "지역주민들이 장수갨아 알리기를 넘어 관리에 나서는 일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드문 일로 지역주민의 장수갨아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며 "주민 스스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일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선운산, 고창읍성, 상하농원(사진 왼쪽부터)

도내 최고 인기 관광지 top5, 고창에도 있네?

선운산 297만명 · 고창읍성 166만명 등 문체부 방문객 조사 통계 결과 발표

수년째 선운산과 고창읍성이 전북 최고 인기 관광지 TOP5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 조사 통계(국가승인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에선 선유도(297만 4290명), 모악산(279만 1998명)에 이어 고창군의 핵심 관광지 2곳(선운산(195만 800명), 고창읍성(165만 851명))이 TOP5에 포함됐다.

지난해 선운산의 경우, 내국인 195만 3861명이 찾았고, 외국인도 4139명이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읍성도 입장객 통계에서 내국인 165만 4811명, 외국인 3700명으로 집계됐다.

고창군 조사지점 13곳(고인돌유적, 고창읍성, 고창컨트리클럽, 골프존카운티선운, 무장읍성, 미당사문화관, 상하농원, 석정온천, 석정힐컨트리클럽, 선운산도립공원, 장호갯벌체험마을, 판소리박물관, 하전갯벌체험마을)의 평균 입장객은 46만 2192명이었다.

이는 14개 시군 중 선유도 다리개통 효과를 보고 있는 군산시(46만 7341명) 다음으로 많이 고창군의 다양한 관광수요 흡수 효과를 증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형 6차 산업의 농어촌 테마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농원의 입장객이 급증하며 눈길을 끌었다. 상하농원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2만 5896명에서 지난해 16만 2508명까지 늘었다. 실제 농원 내 파머스마켓을 통한 지역농가의 소득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고 풍경이 아름다워서 언택트 관광 시대를 맞아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관광의 경쟁력이 높다"며 "고창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잠재된 지역경제 · 고창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당신은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

전주한벽문화관서 18일 무대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 이하 문화관)은 오는 18일 낮 2시 '당신은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이하 바비레파)'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이하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에 선정, 민간예술단체(춤추는여자들)와 매칭돼 마련된 무대다.

'춤추는여자들'은 그간 한문연의 방방곡곡 사업을 비롯해 각종 무용제와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무용을 기반으로 한 단체이니만큼 신체언어를 통



해 관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바비레파'는 2012년 초연돼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없앤 커뮤니티 댄스의 장을 연 작품으로 '바비레파'는 러시아에서 여름 끝 무렵에서 초가을로 들어서는 시기에 2주간 정도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춤공연 '바비레파'는 일반적 무용공연

라며, "다만, 관객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연 콘셉트가 조정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착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관객을 50명으로 제한을 둔다. 또 사전 예약(063-280-7046)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특히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